

제10차 운영위원회 개최



2004년도 제10차 운영위원회(위원장 채화목)가 9월 7일(화)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방사선종사자정보중앙등록센터 구축경과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었으며 ▲2005년도 사업 및 예산편성 계획(안) ▲2005년도 연구사업 운영계획(안)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사업(안)에 대한 안건이 상정심의되었다.

2005년도 사업 및 예산편성계획(안)은 이사회와 총회의 상정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유 관 기 관 동 정

과학기술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

정부는 2004년 9월 24일(금)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부(장관 오명)가 입안한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금년 정기 국회 기간 중 국회 심의를 거쳐 2005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의 시행은 원전, 교량, 대형건물, 선박 등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산업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비파괴검사기술을 획기적으로 진흥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등 사회 안전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추진배경

비파괴검사 (NDT) 기술은 원전시설, 중화학시설 및 교량, 선박, 가스배관 등과 같이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활용되는 필수적인 검사기술로 특히 산업구조가 선진화되고 국가 기간시설이 확충되어 가면서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비파괴검사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막중함에도 안전의식 결여로 관심이 저조할 뿐 아니라

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관련 제도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각종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비파괴검사를 위해 비파괴검사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 주요 내용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 → 5년마다 진흥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연도별 중점 시행과제를 추진
- 비파괴검사업은 기술인력 및 장비에 대한 기준을 갖춰 등록한 자로 국한 → 검사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제도화
 -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검사업무 정지
- 공정하고 투명한 비파괴검사를 위해 → 검사자의뢰자에게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를 제출토록하

고 검사결과서에 검사자와 책임자가 서명하는 검사실명제도 도입

-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검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 비파괴검사협회 설립

▲ 기대효과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 등을 촉진하여 비파괴검사기술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발전된 검사기술을 공공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 및 산업제품의 품질관리에 활용

하면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활용부처 및 관련부처 : 8개부처 20여 법령에서 활용)

- 아울러 적격업체 중심의 비파괴검사 업종을 건설하게 전문화시킴으로써 검사업체의 안정적 발전과 관련 자격자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
- 검사기술, 기술자격자 및 업체의 기술능력을 정부 주도로 증점 육성시켜 국제적 수준으로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킴

내년부터 제4세대 원자로시스템 개발 본격 착수

과학기술부는 9월 1일(수)부터 9월 3일(금)까지 제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미래의 원자로라 불리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원자력선진국 11개국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정책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GIF 정책그룹대표인 김승봉 과장(원자력정책과)과 장문희 단장(한국원자력연구소 신형원자로개발단)을 비롯하여 GIF회원국 정책그룹대표 50여명이 참석하여,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다국간 협력협정 초안 논의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IV)의 본격적인 국제공동연구 착수를 위한 다국간 협력협정은 총괄협정(Framework Agreement), Gen-IV 6개 시스템별 협정(System Agreement), 각 시스템 개별 프로젝트별 협정(Project Agreement) 등 3개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괄협정(Framework Agreement) 체결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협정 서명주체를 각국의 관련업무 주관 정부부처로 하며, 최소 3개국 이상이 서명함으로써 협정을 발효시키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전 회원국이 서명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지적재산권 공유 등의 문제는 당초 시스템별 협정(System Agreement)에서 정하기로 했던 것을 총괄협정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협정의 세부문안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중에 별도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조율하기로 하였다.

동 협정의 체결은 올해 11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차기 GIF정책그룹회의에서 각국이 서명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부가 서명할 예정이며, 본 협정이 체결되면 2005년부터는 2단계 각 시스템별 협정이 체결되어 회원국간 국제공동연구개발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10회 원자력안전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개최

「제10회 원자력안전의 날」기념식이 오명 과학기술부장관을 비롯한 원자력계 인사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8일(수) 대덕연구단지내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동탑산업훈장에 양창



국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을 비롯하여, 원자력안전상 등 총 42명에게 포상이 수여되는 가운데 고원진 마산삼성병원 기술차장과 이부형 고려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안전분야 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오 장관은 치사를 통해 고유가시대에 있어 원자력의 역할을 언급하고, 국가 경제가 튼튼해 질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원자력 관계종사자들의 원자력안전성 확보 노력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원자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날 식전행사로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은 서울·부산 등 전국 17개 도시에서 원자력안전가두캠페인(9. 1~9. 5)을 펼쳤으며, “원자력 안전과 방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산·학·연 및 언론계, 원전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9. 6(월),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되었다.

이와 함께 전국을 대상으로 원자력시설 개방, 원자력안전강좌 개최, 표어공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되었고 원자력관련 기관에서는 자체기념식과 안전 결의대회를 가지기도 했다.

금번 행사는 원자력안전 관련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해 나가며,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 폭을 확대시켜 국민과 함께 하는 원자력으로 도약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제2004-1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시험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 실시공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은영수)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제2004-1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시험

및 제2004-1회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 원서접수가 9월 7일(화)부터 15일(수)까지 실시되었다.

<접수현황>

단위 : 명

시험구분 접수방법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시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면허시험	2003년도 접수현황	비고
인터넷접수	230	30	감독 253 특수 24	감독 ▼23 특수 ▲ 6
방문접수	41	5	감독 25 특수 5	감독 ▲16
우편접수	3	0	감독 2 특수 0	감독 ▲ 1
계	274	35	감독 280 특수 29	감독 ▼ 6 특수 ▲ 6

최종합격자는 향후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유무 심사 및 신원조회를 거쳐 2004. 11. 23(화) 과학기술부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면허시험은 2004. 10. 17(일)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에서 시행되며, 이에 대한 실시계획은 협회 (www.ri.or.kr), 과학기술부(www.most.go.kr),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http://license.kins.re.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